

2007년 CP TFT를 발족하여 'user friendly CP'라는 미션아래 최적의 진료 프로세스와 사용자들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CP를 활성화 하고 의료 질 향상을 추구해 왔다. 현재 4차년도 CP TFT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CP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진료과 교수(감염관리실장 포함)8명과 간호부 팀장, 보험심사팀장, 약제부 팀장, 영상의학과 팀장, 의료정보팀 개발자와 코디네이터, 그리고 QA 파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CP TFT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CP개발에서부터 관리 및 활성화 등 CP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한다.

CP 개발 과정은 적합한 치료 내용 및 환자 대상을 CP TFT 또는 진료과 CP 개발팀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내용에 대해 진료과에서 기존의 치료 패턴에 대해 분석하여 치료 과정을 재정립 할 뿐만 아니라 중복된 업무는 간소화하여 CP초안(time-task matrix)을 작성하게 된다. 진료과에서 작성한 CP초안에 대해 CP TFT회의에서 항생제 적정성, 보험 삭감항목, PRN 사용 적절성, 환자 안내서 내용 등에 대해 검토 하고 진료과에 자문과 지침을 주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과에서 CP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승인이 되면 전산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발된 CP를 실제 적용하게 되면 모니터링과 feedback이 진행되면서 CP활성화와 CP내용의 주기적인 upgrade가 가능하게 된다(그림 1).

CP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며,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용자 설문조사와 의사, 간호사 간담회를 통해서 CP interface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CP 2.0 화면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CP를 개발한 진료과를 방문하여 실 사용자들에게 사용법 설명회를 가지고, 진료과장 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CP를 홍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항생제 처방 업무 간소화, 의무기록 편의성 증가, 연말 우수 CP 포상, 학회 활동을 통한 CP 성과 공유를 통해 활용을 장려하였다. CP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활용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영지표(적용률, 완료율) 모니터링과 feedback 그리고 변이분석이다. CP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2주에서 1달 간격의 intensive한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진료과에 feedback을 하고 문제점 또는 수정사항을 도출하여 CP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CP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CP에서 탈락한 사례를 추출하여, 요인별로 구분하고 상세하게 살펴보는 변이 분석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100개가 넘는 CP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인 CP적용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운영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이점이 가장 큰 현실적인 한계이기도 했다. 그래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위해 운영지표에 대한 CDW (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이 필요하였다. CP CDW에서는 각 CP별 운영 지표 결과를 기간별로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을 함께 조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CDW 시스템으로의 연계는 data를 통합한 연계정보 분석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독립적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안정적인 정보의 적재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림 2).